◀기쁜 우리 날들▶ **어머니와 할머니의 실루엣**

신경림

어려서 나는 램프불 밑에서 자랐다.
밤중에 눈을 뜨고 내가 보는 것은
재봉틀을 돌리는 젊은 어머니와
실을 감는 주름진 할머니뿐이었다.
나는 그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다.
조금 자라서는 칸델라불 밑에서 놀았다.
밖은 칠흑 같은 어둠
지익지익 소리로 파란 불꽃을 뿜는 불은
주정하는 험상궂은 금점꾼들과
셈이 늦는다고 몰려와 생떼를 쓰는 그
아내들의 모습만 돋움새겼다.
소년 시절은 전등불 밑에서 보냈다.
가설극장의 화려한 간판과
가겟방의 휘황한 불빛을 보면서
나는 세상이 넓다고 알았다. 그리고

나는 대처로 나왔다.
이곳 저곳 떠도는 즐거움도 알았다.
바다를 건너 먼 세상으로 날아도 갔다.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들었다.
하지만 멀리 다닐수록, 많이 보고 들을수록
이상하게도 내 시야는 차츰 좁아져
내 망막에는 마침내
재봉틀을 돌리는 젊은 어머니와
실을 감는 주름진 할머니의
실루엣만 남았다.

내게는 다시 이것이
세상의 전부가 되었다.

교 회 목 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손을 모으면 하나님은 복 주시기 위해 손을 펴십니다	교회생활지침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 인	**갈 보 리 교 회** (마7:8) *Calvary* Presbyterian Church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익명성 -명예
제8권 송구영신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6년 12월 31일
☎ 369- 5077. Khyber Pass Rd.(The Church of Holy Sepulchre). www.calvary.org.nz		

◀하나님! 나의 하나님▶ **유언을 남기지 않도록 하소서**

김치영

주여!
당신이 주신 생명, 귀하게 받아 삽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서 매순간 최선을 다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당신이 오라 부르시면
이 세상을 떠날 때
미련이 남아 뒤돌아보지 않게 하소서.

죽음에 임했을 때
자식들을 불러 모아 못다 한 일을 후회하고
남은 일을 부탁하는 유언은 남기지 않도록 하소서.

나의 마지막 말은
"따로 남길 말이 없다" 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함께 산책을 갔다가 먼저 집으로 떠날 때 처럼
자연스럽게 "먼저 간다" 고 말하며
그렇게 떠날 수 있도록 하소서.

◀말씀따라 행하기▶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의도하는 일을 행하신다

◀인품따라 행하기▶

아무리 필요한 것이라도
무례하게 행동하는
장사꾼의 물건은 절대로
구입하지 말아라.

2006년 송 구 영 신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 광 송 Glory	248장	다 같 이
*감사의 기도 Pray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찬 송 Hymn	460장	다 같 이
기 도 Pray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에베소서 5:16-18	인 도 자
특 송 Praising		신경화 집사
설 교 Sermon	소중한 인생	김성국 목사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십자가 성가대
새해소원기도 Pray		다 같 이
*응 답 송 Response Song	248장	다 같 이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교 회 생 활』	『교 회 등 록』
2006년 신앙생활:하루에 7분기도하기 매일 가족위해 5분 매일 교회위해 1분 매일 남을위해 1분	*3주간 예배,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여러 교회를 다녀 보십시오. 그래야 신중하고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아동,학생: 12:30분	수요예배: 7:30 pm	새벽기도회: 금 5:55	청년부:토 오후 5시

새해에는.....

"나의 단점에 햇볕을 쏘이게 하세요 "

깊숙이 숨기기만 했던 내 단점을 꺼내
햇볕을 쪼여주세요.
그래야 그 단점이
광합성을 하여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